



벨기에 오줌싸개 동상.

세계문화유산 길을 잃다... 더 흥미로운 세상이 열렸다



▲브뤼헤 마르그트 광장은 중세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공간이다.

◀브뤼셀 그랑플라스는 빅토르 위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 칭했던 곳이다.

▶벨기에가 고향인 '땡땡'은 벨기에의 마스코트다. 맥주의 나라 벨기에 술집에서 만난 땡땡.



봉주르! 프랑스·벨기에

〈하〉 벨기에

/브뤼셀·브뤼헤 글·사진=김미은기자



브뤼헤 운하를 따라가는 보트 투어는 여행의 백미다.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반겨준(?) 건 짚시 여인이었다. 벨기에에는 한국에서 가는 직항편이 없다. 우리는 파리 북역에서 기차를 타고 들어갔다. 파리 북역과 브뤼셀 중앙역 모두 짚시와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곳이다.

캐리어를 끌고 역을 지날 때 소문대로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짚시 여인들이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슬픈 눈빛을 한 그녀가 품에 안은 아이가 웬지 안쓰럽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다 깜짝 놀랐다. 사람과 너무 똑같이 생긴 '인형'이었다.

역에서 진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만화 주인공 '땡땡'이다. '땡땡'은 벨기에가 고향이다. 어렸을 때 열심히 봤던 '개구쟁이 스머프'가 태어난 곳도 바로 벨기에다.

벨기에에는 정치 및 경제의 중심인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있는 국제도시다.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파리에 비해 브뤼셀은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었다. 관광객들이 들르는 유명 관광지도 대부분 도보로 둘러볼 수 있어 여행하기에도 좋다.

'작은 파리'로 불리는 브뤼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그랑플라스다.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극찬한 곳이다. 광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이 웅장했다. 그랑플라스와 15세기부터 조성된 시청사, 왕의 집, 길드하우스 등 오래된

브뤼셀 그랑플라스 광장

15세기 시청사·왕의 집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박물관·마그리트 미술관도

'뚜껑없는 박물관' 브뤼헤

40분간의 보트 투어 '백미'

건축물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한밤의 그랑플라스는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2년에 한번씩, 8월이 되면 광장 전체가 꽃밭으로 변신한다고 한다.

그랑플라스에서 조금만 걸으면 만나는 오줌싸개 동상. 세계 3대 실망거리 중 하나라는 놀림을 받고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작았던 오줌싸개 동상은 오히려 앙증맞아서 재미있었다. 가는 길에는 만지면 행운을 불러온다는 브뤼셀 영웅 에베라르트 세르클레스의 조각상도 만날 수 있다.

미로처럼 얽혀 있는 그랑플라스 주변 거리들은 어느 곳으로 들어셔도 흥미롭다.

고전미술관, 현대미술관, 피니에미술관, 위르츠 미술관 등 네 개의 미술관으로 이뤄진 벨기에 왕립미술관을 지나 마그리트미술관으로 향했다. 벨기에에는 마그리트의 고향이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빛의 제국' 등 그의 대표작을 비롯해 각종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은 명성에 비하면 다소 소박한 느낌이 들었지만 알찬 전시 구성으로 흥미로웠다. 인근에는 아름다운 풍경의 예술의 언덕, 악기박물관 등 볼거리가 다채롭다.

브뤼셀은 맥주로 유명하다. 감자튀김, 와플, 훙함요리 역시 브뤼셀을 찾은 이들이 꼭 먹고 가는 음식이기도 하다.

벨기에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브뤼헤다. 한국을 떠나기 전 영화 '킬러들의 도시'를 봤다. 벨기에를 방문하면 당연히 브뤼헤를

들러야하고, 브뤼헤를 가려면 당연히 이 영화를 봐야한다는 지인의 강력한 추천이 있어서였다.

콜린 퍼렐이 주연을 맡은 '킬러들의 도시'는 영국에서 대주교를 암살한 킬러들이 브뤼헤로 도망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 자체도 흥미롭지만, 2시간 내내 펼쳐지는 브뤼헤의 풍광은 기대감을 높이고도 남았다.

브뤼셀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브뤼헤는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뚜껑없는 박물관'이라 불리기도 한다.

브뤼헤의 중심인 마르그트 광장은 화려한 고딕 양식의 주 시청사 건물과 거대한 종탑 등 아름다운 건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14세기 벨기에의 영웅 안 브레델과 피터 코닝크의 동상이 서 있다.

브뤼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보트 투어(8유로다). 40분간 이어지는 투어는 브뤼헤 곳곳의 운하를 따라 이어진다. 머리가 닿을 듯 낮은 다리 밑을 지나고, 스쳐 지나가는 중세풍 건물들의 자태가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든다.

먼저 브뤼셀로 떠난 일행과 헤어져 걷다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맸다. 한데,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공간과 건물들을 만나면서 더 흥미로운 산책이 됐다. 현대 미술과 만난 15세기 성당, 좁은 골목길의 예쁜 건물, 야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찬 가게, 잘 갖춰진 쇼핑가와 음식점까지... 하루 쭉 묵으며 한밤의 브뤼헤, 이른 아침의 브뤼헤까지 만끽하고 싶었다.

mekim@kwangju.co.kr

대한인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